

농부가 된 이경한 목사 이야기

이 경 한 (농부목사, 충남 홍성)

1. 내 정서를 지배하는 10살까지의 시골생활

모세와 달리 저는 태어난 후 10살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3살까지는 충청북도 단양에서, 10살까지는 강원도 태백에서 살았습니다. 태백에서도 당시 석탄산업이 한창이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있는 철암(鐵巖, 쇠바위골)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께서는 1974년부터 1995년까지 20여 년간 막장을 드나드시며 6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광산촌의 검은 모습과는 달리, 제가 자란 철암리의 북동이라는 마을은 물 맑고 산 좋은 곳이었습니다. 큰 언덕 위에 열 평 남짓한 광부사택 다섯 집이 단층으로 한 동을 이룬 긴 건물 수 십 채가 계단식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집 앞의 손바닥만 한 텃밭에는 각종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뒷산은 목장이었고, 옆 산은 맘껏 텅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놀이터였고, 먼발치 앞산은 시루봉이라는 바위산으로 하늘 보고 누운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루봉 바위절벽 틈새들마다 진달래들이 분홍물을 들이면 봄이었고, 그 아래를 돌아 흐르는 맑은 개울에서 물장구치는 소리가 들리면 여름이었습니다. 짧은 가을을 보낸 뒤, 길고 흰 겨울왕국은 1년 중 아이들이 가장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주었

습니다. 1년 내내 낮에는 땀 흘리고,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헤아리며 놀았습니다.



2. 10살에 서울사람 (京漢)되다

10살이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제게 “경한아, 너 서울 갈래?” 물

시골살이 첫 해의 가족들,
아내와 아들 삼형제

으셨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 광산촌 보다는 서울이 나으리라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큰누나는 남대문 근처 변리사사무소에 다니고 있었고, 형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누나까지도 상경할 무렵이었기에 조기유학을 계획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순하게도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큰누나와 형이 서울에서 아이스크림 먹은 이야기를 한 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서울 가면 아이스크림 매일 먹는 줄 알고, 저는 그만 서울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유로 저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경한(京漢)이라는 이름대로 10살에 서울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 가니 아이스크림 먹을 기회는 찾지 않았고, 반면 나의 살던 산천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잦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 방학은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방학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시골에 내려갔고 개학 바로 전 날 상경했습니다.

3. 나이 40에 시골생활을 시작한 이유

1) 자연과 시골에 대한 그리움

10살에 서울사람이 된 후, 시골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 맑고 산 좋고 공기 맑고 별이 쏟아지던 곳에서 살아 본 사람이라면 그 아름다움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추억이 제 마음의 고향이 되고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을 만날 때면 비슷한 느낌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시골생활을 시작한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자연과 시골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2) 자연/시골의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할 아이들

많은 사람이 시골생활을 꿈꾸지만 40세 정도의 나이에 시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좀 다르긴 합니다. 가까워서 종종 만날 수 있는 제 또래인 72년생 가장만 꼽아도 일곱 사람이니까요. 저를 형이라 부르는 더 젊은 가장들도 예닐곱 분 정도 됩니다. 이들이 조금 이르게 시골행을 택한 공통되는 이유 둘을 꼽는다면, 하나는 자신이 자연/시골을 그리워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이 어린시절을 자연/시골에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저의 지난 40년을 추억하면 두 가지 그림으로 나뉘어집니다. 10살까지는 파란하늘과 울긋불긋한 산과 맑은 공기와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대자연의 천연색 그림이고, 상경 후 30년은 자연과 거리가 떨어진 건물 중심의 흑백그림으로 떠오릅니다. 얼마 전 만난 어릴 적 친구는 세상살이가 힘들 때 자연 속에서 뒹굴며 뛰놀던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연과 교감했던 경험이 인생 전체의 정서적인 바탕이 되어준다는 것을 저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 삼형제가 10살, 7살, 4살 되던 2013년 1월, 시골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전체적인 영성(靈性)을 추구하는 길로서의 시골생활

사람을 둘로 나누어 육체와 영혼으로 보기도 하고, 셋으로 나누어 영과 혼과 육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보아 나눌 수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면(머리/가슴)과 육체적인 면(몸)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건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학창시절부터 나이 40이 될 때까지 몸 보다는 머리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초·중·고·대학교에서 머리로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머리로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머리로 목회를 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것도 머리로 하고 머리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 몸은 무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 땀 흘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인생(불한당, 不汗黨)은 반쪽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머리만 쓰는 부분적인 영성을 추구할 것인가, 머리와 몸을 모두 쓰는 전체적인 영성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제 삶의 질문이 되었고, 농사를 삶의 바탕으로 하는 시골생활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4. 시골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노력들

1) 첫 걸음 : 아내와의 대화

시골생활을 향한 동경을 가지고 아내와의 대화를 시작한 것은 삼십 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농사를 짓는 조부모님과 함께 했던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간직하고 있는 아내였기에, 시골생활이 소중하다는 것에는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의 농사도 모르는 남편인지라 무작정 동의할 수는 없었고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세 살 터울인 삼형제 중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던 2011년, 아내의 심경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해 오래 고심해 온 아내 나름의 결론에서도 ‘시골과 자연’이라는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걸음 : 농가 방문

2011년 초, 아내의 대학 후배가 농사지며 살고 있는 충남 홍성을 방문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과 어린이들이 적지 않은 곳이어 서 아이들에게도 괜찮은 시골이라는 것을 알게 되긴 했지만, 여러모로 준비가 부족했던 당시였기에 이곳에서 살리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3) 세 번째 걸음 : 귀농학교

2011년 여름, 우연히 알게 된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여름생태귀농학교(56기, 상주)에서 온 가족이 여름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 귀농학교의 최대 수혜자는 아내였습니다. 학교가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가치관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4박 5일을 참여했습니다. 두 살 배기 막내는 제가 독차지했습니다.

4) 네 번째 걸음 : 인도(India)



인도에서의 가족들

여름휴가로 귀농학교를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의 럭나우(Lucknow)에서 비즈니스선교를 막 시작한 선배로부터 인도로 오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생활방식의 변화를 위한 계기가 필요했고,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인

도생활을 다음 단계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자는데 뜻을 모으게 되었고 2012년을 맞이하며 인도로 떠났습니다. 1년간의 인도생활은 저희 가족이 시골생활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5) 다섯째 발자국 : 충남 홍성

2013년 1월 11일 귀국해, 1월 16일 수요일 인도에 끌고 갔던 여행가방

몇 개를 끌고 충남 홍성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내의 후배를 통해 수소문해 마련해 둔 임시 거주 공간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인도라는 징검다리는 우리 부부에게 시골생활에 대한 용기를 심어 주었지만 반면에 시골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를 잊게 하기도 했습니다.

5. 2년 간의 시골생활 정착이야기

1) 첫 한 달, 임시 거주 공간

임시거주공간에서 시작되었기에, 시골생활의 첫 달은 가족이 거처할 곳을 찾는 기간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소개할 때마다 맺는말은 집을 찾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처음 맞이한 주일, 풀무학교 일요집회에 참석한 것이 지역민들과의 첫 만남이었고, 다음날 가족과 함께 마을합창단에 참여한 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고, 며칠 후 정농회(正農會)의 겨울연수회가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2) 첫 한 해, 국도변 이층집

첫 한 달을 보내며 빈집이 있다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 폐가나 흥가라는 말이 어울리는 집이었습니다. 그중 조금 나은 폐가가 있어 수리를 하면 살 수 있겠다고 아내와 함께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가보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아내의 말에 동감하여 구두 약속을 했던 주인을 만나 취소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큰 짐을 벗어버린 마음으로 마을가게에 들렀는데, 주인 대신 가게를 보던 아주머니가 농가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말 씀을 하셨는데, 흘러들었다가 나중에 그분이 살다 떠나는 집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연락드렸더니 아직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도변의 이층집이어서 시골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폐가와 흥가 같은 집만 봐왔던 우리 부부에게는 호텔 같은 집으로 보였습니다.

이 집에 사는 일 년은 시골생활을 실제로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정농회에서 만난 네 분의 농부들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5개월 간의 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농사현장에 참여하여 유기농방식의 논농사와 밭농사를 몸으로 배울 수 있었고, 농가 현장실습과 별개로 지은 논 500평과 밭 900평에서 독립적인 농사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해의 경험은 농사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해 주었고, 노동의 보람과 유익이 무엇인지 몸으로 알게 해 주었습니다.

3) 두 번째 해, 꿈꾸던 농가주택으로

방금 작년 봄부터 우리 집 식구가 된 닭 스무 마리에게 먹이를 주고 왔습니다. 잔반과 청치, 모아 두었던 배추가 겨울철인 요즘의 먹이입니다.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은 마을에서 정자나무집으로 통합니다. 고목이 된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소나무, 은행나무와 향나무들이 세월을 느끼게 하고, 바깥뜰에서 사랑채를 지나 대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나오는 ‘ㄱ’자 형태의 전형적인 농가주택입니다. 작년 봄 이사해서, 목수일도 하는 농부들과 함께 무너진 대청마루와 얇은 벽체를 보완하는 수리를 하고, 텃밭 다섯 마지기과 논 십 여 마지기를 얻어 농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농을 지향하는 이웃농가들과 공동꾸러미조합을 꾸려가고 있고, 스스로 생태집짓기를 지향하는 농부들의 조합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6. 시골생활을 통해 잃은 것과 얻은 것

1) 문명의 편리함을 잃고, 생명의 신비감을 가까이 하며 살다.

시골생활을 시작한 후 다가온 가장 큰 변화는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환경이기에 편리함이

라는 관점에서는 잃은 것이
 다만,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생명
 의 신비에 둘러싸여 살아갑
 니다. 24절기를 따라 살기에
 우주만물과 더불어 살아간
 다는 사실이 삶에 생기를 불
 어 넣어 줍니다. 머리는 맑고
 삶은 무엇인가로 충만해지는
 느낌입니다.



논두렁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목사

2) 목사(牧師) 호칭을 잃고, 형님들과 아우님들을 얻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왜 목사를 그만두고 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물음이지만,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뜻으로 시골생활을 시작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에게 던져졌던 많은 분들의 질문은 저 스스로 목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목사(牧師) 또는 목자(牧者)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돌보고 기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돌보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자도 되고 양도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과 약점이 다르기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시골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기 보다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현장에서 저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었습니다. 먼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님들이 저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농부님들을 저는 형님, 형수님, 누님이라 부르고, 그분들은 저를 경한 씨 또는 경한아 하고 부릅니다. 목사라는 호칭은 제 삶의 한 부분으로 감추어졌지만, 수많은 형님, 형수님, 누님들, 동생

들을 얻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3) 아빠와 함께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아이들

요즘 저희 집 아이들, 특히 큰 아이는 천원의 무게를 남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빠의 농사일을 도울 때 받는 품삯 때문입니다. 농번기에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가에서는 아이들의 손길도 무시할 수 없는 노동력입니다. 씨를 뿌릴 때 아빠가 파 놓은 구멍에 콩이나 옥수수알을 넣는 일은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자 놀이입니다. 큰 아이를 보면 10살 정도면 삽질이나 낫질을 곧잘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서리태 양이 많지 않아 저녁에 재미삼아 아이들과 함께 직접 까기



발두둑을 만들고 있는 아들들



딸기를 따고 좋아하는 막내 아들

시작했는데, 총 8kg 중에 4kg 정도를 큰 아이가 샅습니다. 300g들이 한 컵에 천원을 품삯으로 정했기에 큰 아이는 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만원은 그냥 용돈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원은 때 한 번 쓰면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아이는 천원의 무게를 자신이 천원을 얻기 위해 수고한 노동의 양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 아껴 쓰라는 말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은 노동

을 했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아이들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약간의 노동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

7. 농사로 산다는 것, 빈들에서 산다는 것

우리 마을 이름은 금평리(金坪里)입니다. 겨울을 나는 동안, 금평리 빈들을 바라보며, 금坪(金坪)이란 이름에서 다섯 단어를 연상하게 되었는데, 금평야(金平野), 금평화(金平和), 금평안(金平安), 금평상(金平常), 금평민(金平民)입니다. 평야, 평화, 평안, 평상, 평민이 귀하다는 뜻으로 생각해 봅니다. 각 단어에 제 나름대로 뜻을 대입해 뜻을 이렇게 풀어 보았습니다(평야=땀, 평화=나눔, 평안=비움, 평상=감사, 평민=겸손). “들에서 땀 흘리며, 평화로이 나누고, 마음을 비우고, 일상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세상.”

이 꿈은 참 소박한 꿈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꿈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시골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불편과 장벽들을 이겨내고, 무엇보다 자기를 이겨내야만 이를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農